

무주산골영화제 먹거리 관리 우수사례 공유

문체부·한국관광공사·전국 55개 축제 관계자 참석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개선 간담회' 초청 발표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초청돼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먹거리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올해 개최 예정인 55개 문화관광축제 관계자 및 지역축제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참석자 토론, 그리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의 실행 방안이 담긴 '착한가격 결의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먹거리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한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김성욱 팀장은 △먹거리 부스 착한가격 협의 운영 안을 비롯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다회용기 사용 실행 안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무주군은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무주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무주산골영화관 일일 / 26개국 88편 상영 / 방문객 수 5만여 명) 기간 동안 7개 부스(운영 기간 6.3~5)를 통해 삼겹살과 소시지, 김밥, 떡볶이, 어묵 등 30여 가지 먹거리 메뉴를 선보였으며 어묵 1천 원, 직접 만든 식혜(500ml) 1천5백 원, 수제 소시지 3천 원, 수제 핫도그 5천 원, 숙주나물을 곁들인 삼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초청돼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먹거리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겹살 한 접시(지름 26cm)를 1만 원에 판매하며 맛과 가격, 양을 모두 만족시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성욱 팀장은 "고객편의와 친절, 위생, 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이 된 곳, 카드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해 업체를 선정했다"라며 "7개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고 나서는 메뉴별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하고 부스 전체가 음료와 주류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가격과 메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업체들은 잘 따라왔다"고 밝혔다. 대신 "업체에 다회용기 사용 금액

의 50%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기반 시설과 부스 참가자들을 위한 앞치마, 두건, 요리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사전 위생교육과 행사 기간 현장 점검은 병행했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7개 부스의 3일간 총 매출액은 총 7천여만 원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며 다회용기 사용으로 2022년도 기준 하루 10톤 정도 나오던 쓰레기도 절반으로 줄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영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초여름 낭만 영화제'라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다시 오고 싶은 착한 영화제라는 인정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륵사에서 듣는 백제 이야기 '렉처콘서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3인의 명사와 함께 백제문화의 가치를 주제로 한 '렉처콘서트'가 진행된다.

익산에서의 세계유산 축전(7.7~7.23) 시작을 알리는 '렉처콘서트'는 3인 3책 재미있고 유쾌한 대화로 오는 8일, 14일, 22일 저녁 7시 30분 미륵사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강의와 음악, 영상 등 예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렉처콘서트의 뜻처럼 세계유산 백제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기 위해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기존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문화유산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이어가며, 소규모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8일 첫 시작은 한국사 강의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라영환 스타 강사가 콘서트 진행을 맡는다. 생생한 스토리텔링 강의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라영환 강사의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백제문화 이

야기를 들을 수 있다.

14일에는 K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한국 알리미' 서경덕 성심여대 교수를 모시고 한류문화의 원조 백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22일 마지막 행사는 'EBS한국사 강의', KBS '역사저널 그날', tvN '벌거벗은 한국사' 등 많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역사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큰별 쌤 최태성 강사의 백제왕도 익산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매회 강의와 함께 가온병창단, 이봉근&작벽, 해량 등 현대적으로 풀어낸 풍격있고 신명나는 공연이 흥을 더할 예정이다.

렉처콘서트는 별다른 예약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되며 행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변동사항 등은 백제세계유산축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장수군,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초청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성료

장수군이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단 초청공연으로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한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공연은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의 반주에 불소이 국립오페라 극장 주역 성악가들이 전하는 벨리니, 베르디 등 수준 높은 클래식 오페라 공연이 진행됐으며, 한국 풍요, 가요 등 익숙한 음악도 함께 구성돼 다양한 연령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특별출연으로 함께한 번안지역아동센터 파랑새 합창단 아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합창은 예술적 문화 화합을 넘어서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관람 내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던 관객들은 마지막 곡을 마치자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지식살롱 '김벌리 UK(김민정)' 강연

대학생 유튜버가 말하는 Gen-Z 유튜브 타겟팅 방법 주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2일 오후 7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공동으로 전북지식살롱 9회차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9회차에서는 대학생 유튜버 김벌리 UK(김민정)가 'Z세대 유튜버가 말하는 Gen-Z 유튜브 타겟팅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에 따르면 김벌리 UK(김민정)는 10대 때 중국에서 5년간 유학 후 현재는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유튜버다

그는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제작하며 자연스럽게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케팅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Anglia Ruskin University 입학 허가를 받고, 9월에 그래픽디자인학과 석사과정으로 진학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Z세대의 행동과 취향은 물론, 라이프 스타일도 감조할 예정이다

특히 강연 전후에 전북지역 대학생들과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강사와 강연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은 Z세대 마케팅 방법과 트렌드의 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와 링크(<https://naver.me/FtdRxxv>)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공연 배달 청년예술인·기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방문 서비스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 도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일터, 직장, 학교 등 일상 공간에 청년예술인이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방문 서비스를 함께 할 청년예술인과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청년문화예술 전문배달서비스'는 도내 청년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문화향유 취약계층(근로자, 특수직무종사자) 등 공연을 희망하는 직장 및 일상 공간에 소규모 공연을 제공하는 공연방문 서비스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022 전라북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다채로운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예술 활동을 위한 인프라 등 여건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만족이 40.3%로 높게 나타난 결과치는 재단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반영해 왕성한 활동기에 있는 청년들이 더욱 더 도민 가까워서 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예술자원을 일상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또한 환경적·경

제적 문제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예술 활동 기반을 다각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 공연장이 아닌 도민들의 직장, 모임 등 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는 점, 그리고 도민들과 몇 미터 거리에서 눈을 맞추며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신청은 역량과 재능, 열정을 갖춘 전라북도 청년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내 모든 구성원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은 연간 2회 공연배달을 진행하며, 활동비는 1회당 팀 인원수에 따라 60~140만원 차등 지원된다

청년예술인 모집 공고 및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이메일(jact7445@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도내 청년예술인들의 공연배달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후 주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